

새해 새 설계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지역과 소통하며 농어촌 목소리 듣겠다”

지역 인재 10% 이상 채용 성과
혁신도시·지역 발전 다함께 노력
행복한 농어촌 조성 공기업될 것



목표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농업관련 행사,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의 성격과 기능의 구분 없이 혁신도시의 성과와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차원에서다.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 또한 농어촌 지역의 행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 이 사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와 깨끗한 농어촌용수 확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빈틈없는 재해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복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행복증진활동, 농지은행 사업, 어촌지역개발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기반 확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의 핵심 정책사업도 더욱 활발히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또 세계 각국과 FTA가 체결되고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산업의 ‘세계화’라는 문을 앞서 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가 가진 106년의 농어촌 개발 경험과 농업 인프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해외협력과 기술수출을 추진해 세계 최고 농어촌 개발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국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창의와 소통, 업무효율을 위한 공기업 최초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으로 주목을 받은 이 사장은 “일하는 의식, 방식, 문화를 바꾸고 공기업 혁신의 선진모델을 만드는 한편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조직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선진기업문화를 정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양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12일 나주 빛가람도시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빠른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새해에도 5000만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량생산기반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농수산업인의 행복과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를 통해 농식품산업·농어촌의 새 도약을 위해 지방화와 세계화를 아우르는 ‘세방화(Glocalization)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 사장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맞는 첫 해인 만큼 지역과 호흡하고 소통하며 농어촌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지역(Local)의 특화된 경쟁력이 세계적(Global) 경쟁력을 키우는 바탕이 되므로 지역 중심 농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향상을 이끄는 ‘지방화’를 실현한다는 그의 지론이 반영된 목표다.

개인적으로는 나주로 이전을 마친 13개 기관이 함께 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의 초대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이 사장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학교를 나온 지역인재를 10% 이상 채용하는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20.95 (-3.75)
- ▼ 금리 (국고채 3년) 2.01% (-0.05)
- ▲ 코스닥 574.76 (+1.77)
- ▼ 환율 (USD) 1081.40원 (-8.60)

효성, 佛 에너지플과 업무 협약

전력 수요자원 시장 진출

효성은 12일 유럽 최대 전력 수요관리 전문기업인 프랑스의 에너지플과 업무협약(BSA)을 맺었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국내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수요관리사업자로 참여해 왔다. 전력 수요자원거래시장은 아낀 전력을 되파는 시장이다. 기업·공장 등이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력을 쓰기로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중개업체인 수요관리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 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수요관리사업은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빛거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조현준 전력본부장(사장)은 “계열사인 효성ITX가 보유한 클라우드 플랫폼, 대용량 스토리지 분산처리 시스템 같은 사물인터넷(IoT) 핵심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이번 신사업 진출로 전력리커저감,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와 함께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광주지역 아파트 올 1만가구 공급

20개 단지 ... 작년보다 20% 줄어

올해 광주지역엔 아파트 1만여 가구가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은 구도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사랑방부동산(homesrb.co.kr)에 따르면 광주 주거단지를 조사한 결과 올해에는 20개 단지, 1만여 가구의 공급이 예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3개 단지 1만2000여 가구보다 20%가량 적지만 일정을 조율 중인 곳까지 더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분양시장의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재개발·재건축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올해 8곳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들 사업은 지역에 따라 1~2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 구도심인 동구에서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중 골드클래스가 지원2-1구역 재개발지역에 690가구를 공급하며 아이파크가 지난해 학3구역에 이어 학2구

역의 문을 두드린다. ㈜라인 이지더원을 시공사로 선정해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지역도 1700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계림7구역도 올해는 사업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구지역은 쌍촌주공, 영주주공, 연화아파트 등 3곳 아파트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쌍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사전중랑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서구 쌍촌동 323-11번지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 영주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오는 6월 시공사를 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마북동 연화아파트의 재건축이 올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동 각화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이뤄진다. 골드클래스가 올 상반기 중 이곳에 39~84㎡로 이뤄진 분양·임대 아파트 716가구를 공급한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광주시장 중재로 본교섭 재개

13일 노조의 3차 부분파업 예고로, 전운이 갑툭튀 금호타이어 노사가 12일 교섭 재개에 들어가면서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유보하고, 오후 34차 본교섭에 들어갔다. 이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전 10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 노사

대표와 3차 면담을 갖은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윤 시장은 면담에서 “금호타이어 노사 분쟁이 장기화하고 전면 파업 등으로 확산할 경우 워크아웃을 이제 막 종료한 회사는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협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광주·전남 중기청
15일 시청 대회의실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청장 류병걸)은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사·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최상위 기관으로 이들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자를 포함할 시 인원은 10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광주신세계 ‘키덜트 프라모델 페어’ 인기

트랜스포머 옵티머스과 건담시리즈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건담 존, 자동차 존, 비행 존, 밀리터리 존 등 170여점의 작품으로 꾸며졌으며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1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 ‘키덜트 뮤지엄, 프라모델 페어’를 찾은 어린이들이 영화 속 로봇캐릭터를 재현한 대형 피규어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건담 존, 자동차 존, 비행 존, 밀리터리 존 등 170여점의 작품으로 꾸며졌으며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 모집 인원** ▶ 30명
-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입학상담문의 GOChina 중국 전문 입학상담 www.gotochina.co.kr 233-9582 (중) 구오말리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